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7면	원주상의 회장 이·취임식	1
江原日報	21면	“규제개혁 통해 원주권 협력 가치 높여나가자”	1
江原日報	온라인	횡성 서원 골프로 지역 소멸 극복 ‘첫 결실’	2
江原日報		횡성축협 ‘스마트 가축시장’ 개장	3
강원타임즈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저도, 4월 5일 첫 입어	4
江原日報	14면	강원랜드 태백 직원숙소 20년 만에 착공	5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최승순·박호균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05면	강원 건설공사 계약액 1년새 3조원 증발 빨간불	6
강원도민일보	07면	외국인 투자 외면받는 강원도 85.5% 급감	6
江原日報	07면	강원랜드 2조5천억 투자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7
江原日報	10면	"난개발 공동 투쟁" 홍천연대회의 출범	8
강원도민일보	06면	"유일한 통로 막아" vs "재산권 행사" 마을길 통행 마찰	9
강원도민일보	13면	삼척 도계 미디어센터 활성화 '박차'	9
江原日報	07면	‘별빛·요가·명상’ 3박자 강원서 즐겨요	10
江原日報	01면	오늘 봄꽃 만개 재촉하는 '따뜻한 봄비'	10
강원도민일보	14면	횡성축협 가축경매시장 스마트해졌다	11
강원도민일보	17면	양양 청소년 국제교육원서 외국어 배운다	11
江原日報	20면	예향 강릉의 미술관서 찾은 ‘봄봄봄’	12
江原日報	22면	복잡한 건축민원 처리 시가 돕는다	12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군 청년 자격증취득지원 1인당 최대 10만원	13
강원도민일보	16면	'점심 걱정 뚝' 철원 못자리 공동취사장 복직	13
江原日報	16면	철원군 노후 마을회관 신축·보수	14
江原日報	11면	道-원주시-디에스테크노 반도체 공장 신설 맞손	14
江原日報	15면	평창 전통시장 활성화 123억원 투입	15
江原日報	23면	화끈한 공격 강원FC, 대구전 첫 승 노린다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1인 다수표 차등 문제 개선 필요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경관은 공공자산, 관리와 투자 동시에 이뤄져야	17



원주상의 회장 이·취임식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병주)가 2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 및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4 04 03 () 21

“규제개혁 통해 원주권 협력 가치 높여나가자”

원주상의 조병주 회장 취임

원주상공회의소가 조병주 신임 회장(사진)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기 위해 함께 나선다.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및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이 2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려 조창진 회장이 이임하고 조병주 회장이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창진 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지사와 송기현·박정하 국회의원, 원강수 원주시장, 김명기 황성군수, 김기홍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전종률 G1방송 사장, 박대암·이해규 전 회장,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원주·횡성·영월 상공인 회원 등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및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이 2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렸다.

이 참석했다. 조병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에만 기대서는 기업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앞으로 규제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원주권의 협력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진 명예회장은 “지역 상공인을 위해 일한 것이 인생 중 큰 보람이자 영광이다. 명예회장으로 상공업 발전에 더 큰 관

심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지사는 “민선 8기에서 원주시와 공조해 20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이 중 3개가 반도체 기업이다. 원주의 동력이 강원자치도의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상공인들이 보다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윤기자

2024 04 02 ()

江原日報

횡성 서원 골프로 지역 소멸 극복 '첫 결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스포츠 교육센터 2027년 완공 추진
지역 풍부한 골프 인프라와 연계 인구 유입 등 생존 공감대



횡성 서원초교 학교복합시설인 스포츠 교육센터 조감도.

횡성 속보=골프를 매개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려는 횡성 서원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서원초 스포츠 교육센터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교육부는 '서원초 스포츠 교육센터 건립'사업을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으로 선정(본보 지난 2일자 4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원초교에는 국비 75억원 등 모두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교육센터가 2027년까지 완공된다.

스포츠 교육센터는 수영장과 실내 골프시설, 돌봄교실, 인조 잔디 구장 등 다목적 시설이 갖춰진다.

서원초교 스포츠 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횡성군, 횡성교육지원청, 서원초교는 올 2월 신경호 교육감, 김명기 군수,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경녀 횡성교육장, 이병필 서원초 교장과 실무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자 업무협약을 갖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올 1월에는 서원면 소재지 맞은편에 들어선 벨라 45CC와 골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한 골프 환경을 이용한 골프 특성화 교육의 발판을 만들었다. 김명기 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 앞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주민과 학교, 교육청, 행정의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지역 화합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상징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 04 02 ()

江原日報

횡성축협 '스마트 가축시장' 개장

횡성축협 스마트 가축시장이 2일 조곡리 가축경매시장에서 개장했다.

횡성 횡성축협 가축 경매시장이 '스마트 가축시장'으로 새단장했다.

횡성축협은 2일 조곡리 가축경매시장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지역 농협조합장, 축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축협 스마트 가축시장 개장식'을 열고 첫 경매를 실시했다.

스마트 가축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돼 횡성군과 농협중앙회의 지원금과 횡성축협 자본금 등 1억,000만원이 투입됐다. 스마트 가축시장은 실제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비대면 가축시장 운영이 가능해져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비상 상황에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한우 사육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2012년 5,800만원, 2014년 8억원 등을 지원해 가축경매시장 현대화를 지원했다.

엄경익 조합장은 "보다 간편해진 가축경매시장 이용으로 축산농가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거래가 더욱 활성화돼 농가의 축산 활동에 많은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기 군수는 "스마트 경매시장 도입으로 경매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돼 경매에 참여하는 농가와 출하자, 구매자가 모두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4 04 02 ()

강원타임즈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저도, 4월 5일 첫 입어

"저도어장 출어선 점호방식(통신점호) 변경, 52년만 어업인 불편사항 해소"



【강원타임즈】 김장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본부장 정일섭)는 2024년 4월 5일(금)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저도어장(1972. 4. 1. 최초 개방) 첫 입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입어 대상척수는 현내면 소속 어선 100척, 고성군 소속 어선 80척 등 180척이다.

저도 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최대 황금어장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간 조업이 이뤄진다.

또 크고 맛이 월등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문어를 비롯한 대게, 해삼, 해조류 등 어업인 및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어종을 어획한다.

이와함께 연안 소규모 어선 위주로 저도어장에서 조업함에 따라 접경수역에서의 안전조업과 피랍방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업지도선(87톤) 1척을 상시 배치하고 해군 2척, 해경 2척, 수협지도선 1척 등 총 6척을 배치해 어선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앞서 고성군 및 고성군수협에서 저도어장 입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안전조업 및 월선 방지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업구역 이탈 방지를 위한 경계 부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 저도어장 입어절차(점호방법)를 시각점호에서 통신점호로 변경 시행한다.

저도어장 최초 개장(1972.4.1.) 당시인 70년대 초 간척활동의 우려와 무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들이 많아 안보측면에서 원시적인 시각점호를 받고 입어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현재 모든 어선들이 의무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강원자치도에서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국방부, 속초해경 등)과의 협의를 통해 52년 만에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특히,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첫 입어일 저도어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및 어선안전사고 예방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이날 현장에 김용복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 함영준 고성군수 등이 도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입어 어업인을 격려하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어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월선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현장을 점검한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남북 간 접경지역인 저도어장의 특수성을 감안,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월선 및 안전사고 없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江原日報

2024 04 03 ()

14

강원랜드 태백 직원숙소 20년 만에 착공

140명 수용 내년 준공 목표

[태백] 강원랜드 태백 직원 숙소가 건립을 논의한 지 20여년 만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강원랜드는 2일 황지동 태백복지관 인근에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박찬 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영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한영·문관현 도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 직원 숙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태백 직원 숙소는 238억원을 들여 지상 6층, 건물면적 4,983㎡(1,507평), 140명을 수용



◇강원랜드 태백직원 숙소 착공식이 2일 황지동 태백복지관 앞에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할 수 있는 규모로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숙소는 전 객실이 1인실로 운영되며 인근에 있는 강원랜드 태백복지관의 사우나, 헬스장 등의 여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태백 직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인근 상권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져 태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1981년 시 개청 이래 가장 힘든 올해에 이번 기숙사 착공이 태백 시민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江原日報

2024 04 02 ()

[동정] 최승순·박호균 도의원

최승순(강릉)·박호균(강릉) 도의원은 3일 오후 6시 강릉시 씨마크호텔 아산트리움 2층 바다홀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2024 강원소년체육대회 만찬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4 03 ()

05

강원 건설공사 계약액 1년새 3조원 증발 빨간불

고물가·PF 부실 타격 감소세
공공건설 조기발주 대책 역부족
지역업체 SOC 참여율 높여야

최근 3년 간 강원지역 건설공사 계약액 (출처: 국토부)

연도	현장소재지역 건설공사 계약액	본사소재지역 건설공사 계약액
2021	10조3000억원	5조원
2022	12조5000억원	6조원
2023	9조5000억원	4조7000억원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민간건설이 위축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강원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이 1년 만에 3조원이나 줄어 도내 건설업계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강원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은 9조5000억

원으로 전년(12조5000억원) 대비 3조원(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은 2019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10조3000억원) 이후 10조원대를 넘어섰고 2022년

12조5000억원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시멘트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용, 인건비 상승 등과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불러온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올해 초 강원도 등 지자체와 정부가 공공건설 조기발주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훈풍'이 불기에는 역부족이다. 2월 기준 강원지역 건설수주액은 248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0%나 증가했음에도 1~2월 누계비로 보면 1.3%

상승에 그쳤다. 이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3배이상(235.9%)의 증가폭에도 민간부문에서 절반이상(54.3%) 감소해 전체 건설수주액이 결국 제자리걸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적인 건설경기 악화로 대기업의 지역진출이 확대되면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에만 분사를 둔 건설사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4조7000억원으로 전년(6조원) 대비 1조3000억원(21.7%) 감소,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의 49.5%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지 못했다.

강원지역 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은

전국(240조4000억원) 대비 1.9%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95조원) 등 수도권(145조)은 6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내 건설업체는 민간 건설 분야가 부진한 상황에서 도와 시·군 지자체 등의 SOC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관계자는 "건설 경기는 흐름이기에 공공 건설에서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에 나서줘야 민간부문도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강원도민일보

2024 04 03 ()

07

외국인 투자 외면받는 강원도 85.5% 급감

1분기 FDI 70억 달러 '역대 최고'
강원 300만달러 수준 최하위권
접근성·노동인구 부족 원인 분석

강원특별자치도내 외국인투자 환경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비 열악해 최근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투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대 1분기 FDI 중 최대치다. 코로나19 초기 2020년 1분기 32억 8000만 달러였던 FDI 규모는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9.2%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38억 5000만 달러로 2.5% 감소했다.

FDI 규모 확대에도 강원지역은 1

분기 300만 달러 수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5.5% 급감, 전국 17개 시도 중 투자 규모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FDI가 63.9% 증가한 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그 규모와 비중이 확대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타 비수도권 지역인 대전(4억 9500만 달러), 전북(4억 3800만 달러), 충북(3억 1500만 달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분기 취재 결과 도내 외국인직접투자 열세의 이유로는 접근성 부족이 꼽

혔다. 또 젊은 층 노동인구도 적어 제조업 등 분야에서 투자 규모가 작고, 수도권 대비 투자 건수도 적어 투자 감소 시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강원지역의 경우 수도권 대비 도로·항만·항공 등 접근성이 낮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수도권 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투자 건수도 수도권 대비 적어 규모가 큰 투자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크게 집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소재지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강원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통상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중 1분의 비중은 20% 미만을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역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 2022년 1700만 달러, 2023년 5900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황선우

2024 04 03 ()

江原日報

07

강원랜드 2조5천억 투자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K-HIT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2032년까지 3,400명 신규 고용
방문객 1,200만명 달성 등 계획

강원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리조트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K-HIT 프로젝트 1.0' 발표회를 갖고 2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랜드는 2일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자체와 시·군의회, 사회단체, 지역 주민, 임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열고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K-HIT 프로젝트 1.0'은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개월간 전문가와 학계, 관계기관, 지역주민, 내부직원, 방문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온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강원랜드는 2032년까

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K-복합리조트 도약'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비카지노 매출 비중을 현재의 13%에서 30%까지, 방문객 수를 현재 680만명에서 1,20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고용 3,400명, 외국인 관광객 1,000% 이상 확대 등 계량 목표를 설정했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비카지노 부문의 과감한 재투자로 매출비중 확대', '카지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면적 확장 및 규제 현실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브릿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제2의 창업 수준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로 도약할 것"이라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1.0' 발표회가 2일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및 의회, 사회단체,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4 03 ()

10

江原日報

“난개발 공동투쟁” 홍천연대회의 출범

【홍천】홍천지역 대형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농촌파괴형 난개발 저지를 위한 홍천연대회의’를 구성, 공동 투쟁에 나선다.

물걸리석산개발반대위, 월운리골프장반대위,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홍천풍전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 등으로 구성된 난개발 저지 홍천연대회의는 2일 홍천군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하는 난개발 중단 △농촌 주민의 안전과 행복 보장 △지속가능한 홍천 발전을 위한 홍천군의 책임 있는 행정과 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홍천연대회의는 “홍천 곳곳

석산개발반대위·송전탑반대대책위 등으로 구성 주민과 공동 대책위 꾸려 시행사 대응 나서기로



◇‘농촌파괴형 난개발 저지를 위한 홍천연대회의’는 2일 홍천군청 앞에서 지역 내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에 각종 난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과 마을공동체 파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송전

탑, 양수발전소, 석산개발, 골프장 건설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마을마다 현

수막이 내걸리고 각종 대책위가 꾸러지면서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형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 시행사와 관련기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홍천연대회의는 “홍천군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천연대회의 관계자는 “홍천읍 하오안리 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 북방면 능평리 규석광산 반대 주민 등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2024 04 03 ()

강원도민일보

06

“유일한 통로 막아” vs “재산권 행사” 마을길 통행 마찰

춘천 농촌 사유지 철조망 설치 주민 “위급 시 구급차 진입 우려” 소유주 “길 사용 보상요청 과정”



춘천 농촌마을의 도로가 사유지에 포함되면서 소유자와 주민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용하던 통행로를 땅주인이 막아버리면서 갈등 끝에 주민들은 법적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2일 방문한 춘천의 한 농촌마을.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게 막아 놓은 철조망에는 '이 길은 사유지입니다. 재산권 권리 행사 준비돼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일 찾은 춘천의 한 마을. 30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는 이곳 마을의 진입로에 들어서자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재산권 권리 행사 준비돼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이 걸린 도로에는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철조망이 설치돼 있어 승합차 등 차 폭이 넓은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해 보였다.

택배차량이나 트럭 등은 지나갈 수 없게 돼 있었다. 주민들은 해당 통행로는 지난해까지는 평소처럼 차량들이 오가며 이용하던 도로였지만 지난 2월부터 토지 소유주가 적치물을 세워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마을 통로가 한개뿐인데, 위급시 구급차도 못들어오면 어쩌나"라며 걱정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을 주민 A씨는 "농기계가 오고갈 수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겨울철 가스충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난방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며 "노령의 주민들이 아파도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결국 원만한 협의가 진행이 안되자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도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 소유주 B씨는 "아버지 소유의 땅이었는데 당시 토지소유주 동의도 없이 길이 설치된 것으로 알아 시에 보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 시

작이었다"라며 "분명 내 땅인데 의지에 서운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고, 도로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할 때도 나를 제외시켰다"며 울타리를 치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이런 농촌 마을길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소유자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흥천에 위치한 마을길에 철제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B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리기도 했다. B씨측은 '해당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속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행로를 막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해 도로폭을 제한함으로써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로 유죄 판단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마을길이 사유지 다보시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하고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4 04 03 ()

13

삼척 도계 미디어센터 활성화 '박차'

미디어 교육 공모사업 선정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 예정 예술인 파견 협력기관 참여

면적 222.36㎡, 지상 1층 규모로 도계미디어센터를 설립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곳에는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실, 라디오녹음실, 편집실, 기자재실 등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의 창조적 미디어 활동과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여기에 라이브커머스와 보이는라디오,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방송체험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등이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화를 위해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시청 자미디어센터, 한국남부발전,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영상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계기로 관련 공모 사업을 확보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원시청 자미디어센터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2개가 선정돼 올해부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진행한다. 내달부터는 도계 흥전지역아

동센터 청소년들과 영상제작교육이 진행되고, 올 하반기 즈음에는 도계중 학생들과 영화제작교육이 이어진다. 또 예술인들이 지역 스토리를 중심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협력사업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사라져가는 폐광지역 이야기를 기록하는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구정민 koo@kado.net

강원남부권 최초로 폐광지역에 설립된 삼척 도계 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주목된다.

삼척시는 올해 초 도계읍 도계대안길 24(도계유리게스트하우스)에 연

2024 04 03 ()

07

江原日報

‘별빛·요가·명상’ 3박자 강원서 즐겨요

27일부터 별빛이 내리는 요가 야간관광 명소에서 7차례 운영

“별빛 아래서 요가와 명상 즐기며 힐링하세요.”

별보기와 웰니스를 결합한 관광 상품인 ‘별빛이 내리는 요가’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춘천을 시작으로 도내 야간관광 명소에서 총 7차례 운영된다.

강원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최성현)이 마련하며 춘천 대교가 보이는 리버라인 카페, 조선시대 행정 중심지였던 원주 강

원감영, 동강의 자연을 담은 영월 동강시스타, 철원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소이산 전망대, 삼척해수욕장과 동해 추암해변 등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야간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과 함께 드론쇼, 국악요가, 일출요가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네이버 예약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별빛이 내

리는 요가’ 프로그램은 춘천 산토리니, 정선 로미지안가든, 강릉 경포호수 광장에서 열려 20~30대 여성 400여명이 대거 참가했다. 또 나만의 요가 자세 사진을 찍어주는 인생샷 부대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고 관련 사진이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별빛이 내리는 요가 프로그램을 강원자치도의 특화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2024 04 03 ()

01

江原日報

오늘 봄꽃 만개 재촉하는 ‘따뜻한 봄비’

건조한 날씨로 강원지역 곳곳에서 산불 등 각종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일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며 화재 우려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중·남부산지와 태백, 중·남부동해안에 5~20mm, 내륙

과 북부동해안, 북부산지에는 5mm 내외로 예보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며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아침부터 종일 영상권에 머무르며 잠시 주춤했던 꽃망울도 활짝 트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양구가 영상 4도로 가장 낮겠고, 춘천 7도, 강릉 8도, 원주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다. 박서화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03 ()

14

횡성축협 가축경매시장 스마트해졌다

인터넷 스마트 경매시스템 도입
비대면 시장 운영 가능 '기대'
노후 전광판 교체 등 현대화

기존 가축경매시장에 스마트 경매 시스템을 도입,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스마트 경매시장에는 기존의 노후화된 계류장 전광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교체해 한우를 구매하는 농가가 출품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매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농가는 농협에서 개발한 인터넷 스마트 경매'와 연계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매 현장에 오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가축시장 운영이 가능해져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한우 사육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은 가축경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12년 5800만 원을, 2014년에는 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500만 원을 지원, 스마트 경매시장으로 탈바꿈했다. 김명기 군수는 "스마트 경매시장 도입으로 경매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돼 경매에 참여하는 농가와 출하자, 구매자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횡성 가축경매시장이 스마트 경매시장으로 탈바꿈했다.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은 2일

강원도민일보

2024 04 03 ()

17

양양 청소년 국제교육원서 외국어 배운다

회화 수업 개강 원어민 투입
11개반 60명·매주 2시간씩
도농 교육격차 해소 기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외국어 회화수업 개강식'이 지난 1일 양양 국제교육원에서 열렸다.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을 활용한 지역 청소년들의 외국어 교육이 시작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지난 1일 조영호 부군수, 오세만 군의장, 이규형 속초양양교육장, 이웅 국제교육원장과 학생·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외국어 회화 수업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지난 연말 양양군의회가 개최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가한 4개

기관의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역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농촌마을의 경우 도시와의 교육격차가 너무 커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국제교육원의 원어민이 양양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외국어 회화수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강원국제교육원은 그동안 외국어 회화수업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내 초등학교에 통신문을 발송, 영어 7개반을 비롯,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총 11개반 60명을 모집해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통학버스 운영은 우선 수강생 학부모가 직접 국제교육원까지 학생들의 이동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학버스 운영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종석 양양군의원은 "양양군의회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외국어 회화수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처음이라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江原日報

예향 강릉의 미술관에서 찾은 ‘봄봄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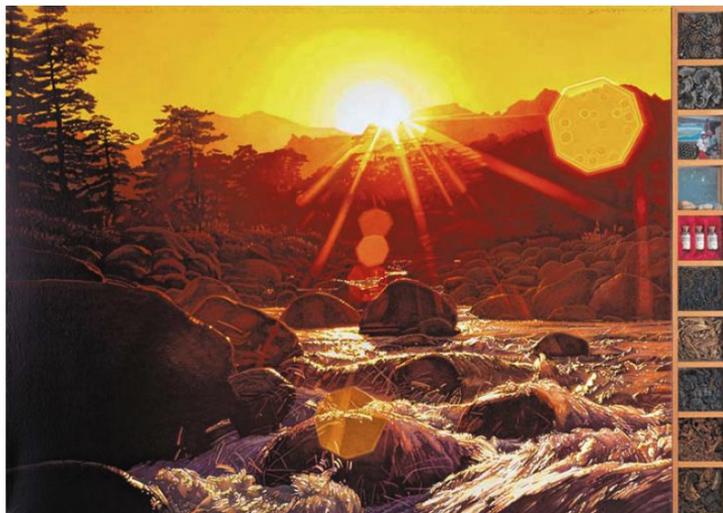
최종림·조상현·차영규 작가
12일부터 시립미술관서 전시
원숙미 넘치는 작품들 선보여

강릉에서 태어났거나 강릉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지역 작가들이 강릉 시립미술관에 봄처럼 찾아왔다.

최종림, 조상현, 차영규 작가는 오는 12일부터 ‘봄봄봄(Spring, Seeing and Looking)’을 주제로 원숙미 있고,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조상현극사실미술관을 설립할 만큼 회화 분야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조상현 작가는 52년이란 시간 동안 극도로 현실화된 작품을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안을 안겨왔다. 그의 작품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도 같은 모습에 눈길이 갔다가 이후에는 보여지는 그대로의 모습에 매료된다. 리얼리티한 소재를 통해 지친 현대인의 정신과 육체에 맑은 비를 불어넣어 주려는 작가의 작품관은 블랭키즘 정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강릉원주대 예술체육대학 교수·학장을 역임한 차영규 작가는 한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상현 작 ‘금강산의 석양’, 차영규 작 ‘휘훨 날으리’, 최종림 작 ‘흔돈-정의’

성형의 방식을 택한 뒤 이를 가변형 캔버스로 만들어 채색 물감을 칠해 다채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차 작가는 한지를 주재료로 선택해 작업을 하는 만큼 인생의 대부분을 한지와 함께 했다. 한지 속에 건강한 기운이 깃들여 있다고 믿으며, 그는 우리의 민족성과 닮은 한지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돌도 없는 친구처럼, 아절 땀 가족처럼 서로를 어루만

지며 살고 있다. 강릉 명원고, 안양예고 등 교직 생활을 했던 최종림 작가는 캔버스 위 연필로 가득 채운 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예측 불가능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관객에게 그림의 해석을 맡긴다. 그에게 예술이란 자아의 삶을 기초로 한 최소한의 표현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그의 예술은 마

법과도 같다. 흑심이 만들어 낸 검은 바다는 그만의 독창적인 세계가 응축돼 있다. 최종림 작가는 “검은색이 인생의 깊이를 인식한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방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은색을 통해 형과 색을 찾고 있으며, 정의와 진리의 삶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김민희기자 minimi@kwnews.co.kr

江原日報

복잡한 건축민원 처리 AI가 돕는다

정부 출연 건축공간연구원 시스템 개발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거대언어 모델을 연간 1만건이 넘는 건축 민원 처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공무원의 민원 처리를 AI가 보조하는 ‘AI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에서도 속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은 최근 개최한 ‘2023년 연구성과 보고서’에서 ‘대규모 언어모델(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들어오는 건축법 관련 질의는 연평균(2015~2022년) 1만470건에 이른다.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는 민원은 한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 몇 명이 처리하기에 힘겨운 실정이다.

이에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건축

민원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AI 답변을 공무원의 실제 답변, 법제처 유권 해석 사례와 비교하며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공무원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 질문에는 AI의 ‘정답률’도 최대 82%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유보적인 답변을 한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최대 47%로 좀 더 낮았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3 ()

15

평창군 청년 자격증취득지원 1인당 최대 10만원

신규 창업 2명에 각 2000만원

평창군은 올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 정책을 대폭 강화해 추진한다.

군은 올해 군비 2억3800여만원을 투입,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과 창업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월부터 서울 대평창캠퍼스에 공유오피스와 회의실, 요리연구실, 라이브커머스실 등

을 갖춘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올해 청년 자격증취득 지원사업으로 50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신규창업지원사업으로 신규 창업자 2명에게 사업개발비로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기존 청년 창업자 2명에게 사업개발비 각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청년 창업자 3명에게는 창업비로 각 2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으로 이달 중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5~6월 아카데미를 운영, 청년 창업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현태

강원도민일보

2024 04 03 ()

16

‘점심 걱정 뚝’ 철원 못자리 공동취사장 복적

민통선 이북 외촌리 21일까지 지역농민 한식뷔페 무상제공 일손부족 해결·산불위험 예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에 있는 철원군 외촌리 철원군대유산전시장에는 2일 점심식사를 하려는 농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도내 최대 곡창지인 철원지역에서 못자리 설치를 위한 농민들을 위해 철원농협이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가량 한식뷔페를 이용한 못자리 공동취사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봄철 못자리 설치시기 황사와 강한



2일 철원지역 민통선 내 못자리 설치 농민들을 위한 공동취사장에는 점심식사를 하는 농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바람 등으로 농업인들이 취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농활동 후 취사 시 산불위험의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철원군과 철원농협은 못

자리 공동취사에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해 산불위험을 낮추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의 취사활동으로 인한 일손부

족 해결 등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철원농협에서 운영하는 못자리 공동취사장은 민통선 내 철원읍 외촌리 철원군대유산전시장에서 오전 11시~오후 1시에 운영된다. 2001년부터 24년째 운영되는 공동취사장은 올해 운영기간 동안 하루 500여명 이상으로 총 1만6000명의 농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공동취사장 운영기간 동안 철원군대표맛집에서 식사하는 기본으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길 바란다”며 “올 한해도 철원평야에 풍년농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2024 04 03 ()

江原日報

16

철원군 노후 마을회관 신축·보수

학사3리 연내 준공·오덕4리 상반기 리모델링 목표

【철원】철원군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보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108개소, 경로당은 127개에 달한다.

이에 군은 매년 정비가 필요한 마을의 사업 신청을 받아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심

의 후 신축 및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김화읍 학사3리 마을회관의 조기 신축을 위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노후가 심각한 동송읍 오덕4리 마을회관은 올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확정된 72개소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문 설치사업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이현종 군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2024 04 03 ()

江原日報

11

道-원주시-디에스테크노 반도체 공장 신설 맞손

시청서 투자협약 체결

【원주】원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생태계가 세 번째 기업 유치를 이끌어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2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핵심 부품 전문 기업인 (주)디에스테크노와 원주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는 인테그리스코리아(주)와 (주)지큐엘에 이어 세번째다.

김진태 지사와 원강수 시장, 안학준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협약을 통해 디에스테크노는 총 702억원을 투자해 원주 문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반도체 부품기업 (주)디에스테크노는 2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디에스테크노 원주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했다.

막농공단지 부지 2만5,538㎡에 연면적 2만6,308㎡ 규모의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을 내년 6월까지 신설한다. 공장 가동 최소인력인 40명을 우선 고용한 후 2026년까지 50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총 9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경

기 이전시에 본사를 둔 디에스테크노는 반도체 공정장비용 부품 제조업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10여개 국가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안학준 대표는 “원주공장의

연착륙에 적극 나서고, 성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5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총 1,200억원의 투자와 110명 추가 고용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강수 시장은 “디에스테크노의 대규모 투자는 원주시가 반도체 첨단 소재부품 도시대열에 동참했음을 증명한 것이며,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지사는 “원주시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형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기반으로 반도체 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허남윤기자

2024 04 03 ()

江原日報

15

평창 전통시장 활성화 123억원 투입

190면 규모 진부시장 주차타워 6월중 마무리
평창시장 등 전선지중화 ... 공연·체험콘텐츠 추진

【평창】평창군이 주차타워 건립·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군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25년 까지 123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 및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를 올 6월까지 마무리한다.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화 사업에 따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는 모두 190면으로 조성된다.

또 평창과 진부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도 23억4,300만원을 투입,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올 한 해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 전통시장마다 다양한 공연 및 체험 부스를 만드는 관광콘텐츠 사업도 병행한다.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육성

사업도 이어진다. 이 중 8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진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테마형 주말 야시장을 선보인다.

특히 평창의 토종갯을 이용해 만든 갯김치축제는 오마이갯축제를 평창김치축제, 송어축제와 연동해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서진 군 경제과장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은 물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2024 04 03 ()

江原日報

23

화끈한 공격 강원FC, 대구전 첫 승 노린다



강원FC가 홈구장에서 다시 한 번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3일 오후 7시30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대구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강원은 현재 3무 1패(승점 3)로 리그 10위에 그치고 있지만 4위 광주FC(승점 6점)와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하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순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대구는 1승 1무 2패, 승점 4점으로 공동 8위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지만 강원은 화끈한 공격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68개

오늘 K리그1 5R 춘천 홈경기 팀·이상현 리그 기대득점 1위 골 결정력 끌어올려 승리 사냥

의 슈팅을 기록했고, 기대득점에서 5.65로 전체 1위에 올라 있다. 지난 4라운드 FC서울전에서는 점유율 57.6%를 기록하는 등 경기를 시종일관 주도하며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다만 결정력이 아쉽다. 실제 득점은 5골로 기대득점보다 낮은 상황이고, 서울전에서 슈팅 17개, 유효슈팅 7개를 기록했음에도 1골에 그칠 정도로 공격수들이 방점을 찍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이상현의 발끝이 매섭다. 이상현은 4경기 3골로 리그 득점 공동 3위에 올라 있다. 3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전을 제외한 3경기에서 모두 골 맛을 봤을 정도로 꾸준하게 활약 중이다. 이상현의 기대득점은 리그 1위인 1.38인데 이상현은 기대득점보다 2배 이상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수비진에서는 징계로 2경기 결장한 주전 센터백 강투지가 돌아온다. 강투지는 최근 리그에서는 결장했지만 몬테네그로 국가대표로 지난달 22일 열린 벨라루스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했다. 강투지는 “지난 2경기에 결장하면서 더욱 열심히 준비했다”며 “휴

식기 동안 대표팀에 가서 경기도 뛰며 컨디션을 유지했다. 이제는 다시 팀을 위해 100% 임할 준비가 됐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라운드에서 유료관중 집계 이후 첫 만석을 달성한 강원은 올 시즌 첫 평일 경기를 맞아 화끈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스카이베이호텔 숙박권, 뉴랜드올네이처 발효홍삼, 대원당 상품권, 레고랜드 이용권, 달콤한캠핑장 글램핑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이 하프타임에 관중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강원FC 직장인데이’ 이벤트는 독특한 근무복을 입고 온 팬들에게 하프타임에 전광판 카드 뽑기의 행운을 제공한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3 ()

/ 19

1인 다수표 차등 문제 개선 필요

-동해상의회장 회비별 투표수 간선제 금권선거 빌미될 수 있어

4월 1일 동해상공회의소 새 회장이 선출됐으나 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된 회비 금액에 따른 투표권 차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 1표제가 아닌 회비 납부 금액이 많으면 1인 다수표를 부여하는 규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 전부터 시작돼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1인 1표 평등선거가 보편화된 시대에 금액 다소에 따른 투표권 배정 방식에 시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돼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동해상의회장 선출은 회원 직선제가 아닙니다. 수도권과 같이 관내 기업 수가 수천 곳에 달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는 간선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동해상은 완납 회원 105명에 불과한데도 직접 회장을 선출하지 않는 '의원간선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장을 선출하는 의원을 뽑을 때는 회원 1인 1표가 아닌 매출액 기준 회비납부액에 따라 1인 최대 24표까지 행사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매출액 상위 회원 17명이 행사하는 표의 비중은 무려 64%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이들보다 매출액이 적은 상공인은 전체의 83% 다수를 점하는데도 표 차등으로 인해 36% 권한 행사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소수의 상위기업이 회장을 점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상의 운영을 좌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규정은 비단 동해상의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역상회가 비슷해 회비 대납 등과 관련 속칭 '편의 전쟁'으로 불리는 금권선거 및 고발전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비롯해 해상공업 관련 전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향력이 막강한 경제단체입니다. 경제계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 회원이 아닌 회비납부액이 큰 대형기업 소수 중심은 운영의 왜곡을 부를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전체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회원 권익 향상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해 내세우는 역할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 정책 자문 및 건의입니다. 대기업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지만, 중소 규모 상공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상회에서조차 다수를 점하고, 더 열악한 중소기업 중심 운영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지방시대 취지와 걸맞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 제기가 논란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상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미래지향적 계기로 진전하는 촉진제가 돼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4 03 ()

/ 19

경관은 공공자산, 관리와 투자 동시에 이뤄져야

경관(景觀)은 산, 들, 강, 바다 등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의미한다. 경관의 구성요소는 자연적 요소와 인간 활동이 작용해 만들어 낸 인공적 요소가 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경관은 자연환경과 인공 구조물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개성 있는 공간과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2020-28호) 아울러 도시 및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의 변화와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경관은 최근 생활 수준 향상, 문화적 다양성 증가, 개성 있는 장소와 공간의 창출 등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경험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관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제 경관은 단순한 개발 과정에서 조성 또는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회, 문화, 경제적 자원으로 가치 상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 브랜드 및 도시 경쟁력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와 강원일보가 지난달 28일 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개최한 '천혜의 비경 동해안,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경관 보전 학술세미나는 경관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해안 천혜 경관을 보전하는 발전적인 개발을 위해선 자치단체 차원의 보전 계획과 공공 토지 매입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김현준 강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 가며 한 주제발표가 큰 주목을 받았다. 즉, 경관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지니 민간 소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자산에 속한다. 영국 런던의 유명 관광지 '스퀘어 정원'은 17세기부터 민간 개발자에 의해 주거단지로 개발된 민간 소유의 정원이다. 사적 소유 정원이지만 공공에 녹지의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 의식의 성장과 함께 관련 제도가 꾸준히 개선돼 본연의 독특한 경관을 보전하면서도 공공이 누릴 수 있

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관을 관리할 때도 시계획뿐 아니라 건축도면 등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김 교수는 이제 경관 관리는 그 중요성

강원일보·강원대문화연구원, '경관 세미나' 주목

자치단체 차원 보전 계획 수립에 공감대

경관 정책 실효성 거두고 있는지 전면 점검을

으로 인해 우리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경관은 공공, 전문가, 시민 모두가 제 역할을 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했다. 자치단체는 이를 새겨들어야 한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는 1995년 2월, 정부가 경관과 관련된 법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전국 최초의 경관형성 시책을 시행했다. 이후 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1997), 강원도 내 7개 특정지역의 벨트경관형성상세계획(2005), 디자인강원프로젝트(2007), 강원도 경관형성업무매뉴얼 개정(2011) 등 경관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경관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